

日本측 책임회피식 조사에 정면반박
보상등 후속조치 兩國현안 떠오름

2.8.01 MB

군대 위원은 물론 제논 지낸 이다. 또 서 울 근교인 고양 65년 韓白기본관계현철을 사문제는 더이상 '과거'의 해발후 47년 韓白의 양곡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부제로 다시들었다고 있다.

「위안부」보고서」발표의의



◇日帝에 의해 징용 또는 징병당해 숨진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들이 90년7월 도보행진을 하며 日정부의 피해보상을 촉구하고있다.

제에서 「일종자료 不備」를
구실로 책임을 회피해온 일
본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날 보고서 내용
군대 위안부 문제의 진도도
밝힌것은 아니다. 자업의화
계와 생존자들의 증언이부
득으로 대차했던말들의 설
화를 거두지는 못했기 때
문. 그러나 군대위안부 판
련 진상규명작업이 일단락
된만큼 피해자보상등 후속
조치가 韓 日간의 현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보상을 구실로 우리의 의견에 좇아 일치를 안화시키기를 고치는 일본정부를 출역의 기금 설치등 日本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정치·군사 대국화와 항을 견제한다는 복안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 있어 日本전략을 세우고 행하겠다는 의의인 것이다.

△朴斗植기자▽

記書수첩



법망을 빠져나가는 기술도 한수 있다. 그래서 검사는 애가 타는 것이다. 이 개 헌법의 법전 모술이다. 역사의 법전 어떤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해의 법을, 斷罪하면 그들이 단죄의 이유를 인정할 것이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물론 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더욱 좋다. 자백은 증거의 요충지이다. 두 법조인들을 부...

자백이 있으면... 여부도...
고지. 역사상의 누백자.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기술자다. 그렇게서 자백을 바랄수는 없다. 그래서 역사법정의 검사들도 애가타는 것이다. 정부는 31일「입제하는 것이다. 지난 1월24일부터 17개 군대위안부 실태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1월24일부터 17개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것이다. 애썼다는니, 내키지않을 일에 응케 발을 디뎠다는니... 우 리끼리 이런 공치사는 적어도 자. 30년대의 朝鮮. 대낮에 누이를, 한밤에 딸을 日軍의 「포로」인 끌여잡은 종군위안부들의 역사. 우선 그 역사를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하는 기상정으로, 정부 보고서 2, 11페이지는 너무 가법다. 나치의 법가 재판했던 뒤를테르르법정(臺閣)의 범죄가 도마위에 올랐던 東洋군 법정. 개안장은 타이프라이터의 글가수심판. 페이지에 출출히 박혔 그 법정의 그 기소장.우리가 지금 법정의 당당한 승선국이 아니고, 일 역시 그 법정의 피고인적에 쫓고며 아었던 일본이 아니다. 그때 우리손들려진 2백11페이지의 활자 무게가 가볍다고 탓할일만도 아닌지 모른다.